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19)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50 (4)108여단 주둔지-(11)종합 동부지역, 갯도·특공기지·비밀 비행장 등 산재

입력 : 2008. 10.09. 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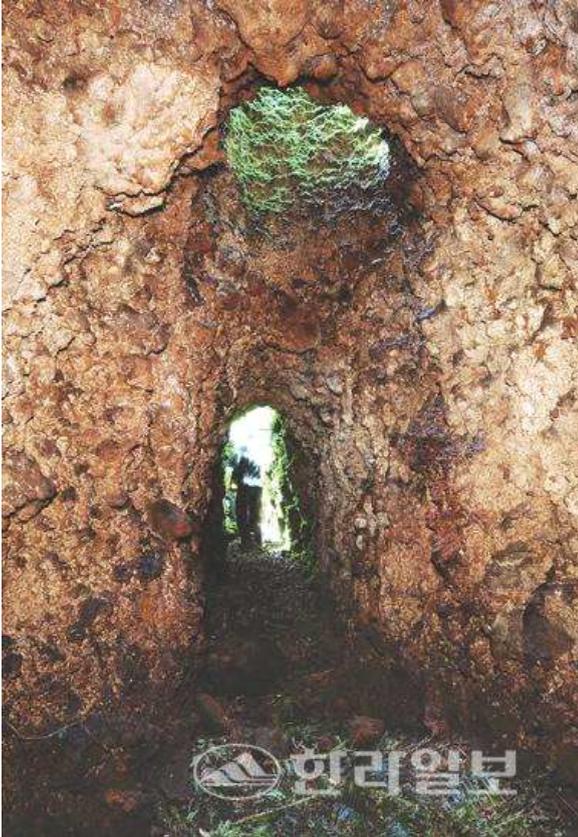
▲성산일출봉 해안에 구축된 일본 해군 자살특공기지과 유도로 시설. /사진=이승철기자

취재팀, 탐사 통해 갯도 등 90여곳 확인

대부분 실태조차 파악못해... 대책 시급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들은 각기 다른 전략 전술적 성격을 지녔다. 즉 제주 서남부와 서북부는 '주진지대'로 설정된 반면 제주 중앙부는 '공격준비지대'로, 동부지역은 '유격진지'대로 상정됐다. 주진지대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제1선 방어선 성격을 지녔다. 모슬포 해안은 미군의 가장 유력한 상륙예상지점으로 꼽혔고, 치열한 전투에 대비 강력한 진지구축과 병력이 집결했다. 공격준비진지대는 일종의 제2선의 방어진지대에 해당한다. 제주 동부지역은 이러한 1, 2선이 무너질 경우 최후까지 저항을 위한 유격진지대인 것이다.

일본군 108여단 6천여 병력이 주둔했던 동부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오름 밀집도를 보이는 곳이다. 108여단은 이러한 오름군이 많은 지형적 특징을 이용 유격전의 중심무대로 삼았다.



▲대륙산에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취재팀은 108여단 주둔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측 문헌자료와 당시 강제징용 생존자에 대한 탐문조사 및 현장 탐사 등 다각적으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모두 90여 곳에 이르는 갱도진지를 확인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군사지도인 '일본군 제 58군배비개건도 제주도'를 보면 거문오름 일대는 108여단 사령부 주둔지로 표시돼 있다. 거문오름 주변은 주저항진지로 둘러싼 형국이다. 탐사 결과 제주 동부지역 깊숙한 거문오름 일대는 많은 갱도진지들이 밀집돼 있다.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한 거문오름에서만 10여 개의 갱도진지와 석축시설 등이 분화구 내부 및 오름 사면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있는 것이 확인돼 관심을 모았다. 인접한 부대오름 지하도 구멍이 송송 뚫렸다. 이곳서 찾아낸 갱도진지는 20여 개 가까이 됐다. 부소오름에서도 10여 개 되는 많은 갱도 흔적들이 발견됐다.

이것은 결국 거문오름 일대가 108여단 사령부 및 병력주둔지로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거문오름~부대오름~부소악 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제주 동부지역 내륙의 주저항진지로서 게릴라전의 중심무대가 됐다.

또 하나의 주저항진지 라인은 거문오름 외곽에 구축됐다. 체오름과 안돌오름 밧돌오름 거친오름 거슨새미오름 일대가 이에 해당된다. 취재팀의 탐사에서 이 일대 오름마다 10여 개 이상씩 갱도진지들이 확인돼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즉 거문오름~부대오름~부소악 라인과 그 외곽의 체오름~거친오름~안돌오름~밧돌오름~거슨새미오름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유격진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돌오름 갱도진지 내부.

이 일대에서 또하나 눈여겨 볼 점은 108여단 작전구역내인 교래리 인근에 비밀비행장 건설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비행장 시설은 1백m×1천m, 50m×9백m 활주로 2개를 비롯 비행기 격납동 실로 중급연습기 12기분과 비밀위치 30기분, 2백명 수용 규모의 병사숙소 등이다. 비행장 완성 시기는 6월 말로 하고 있다. 비밀 비행장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과 제주 동비행장(진드르비행장), 제주 서비행장(정뜨르비행장)과는 달리 중산간 내륙에 위치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비밀 비행장은 시설 등으로 볼 때 특공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륙산에서는 비밀 비행장을 엄호하기 갱도진지 10여 개가 확인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천연동굴을 이용한 사례로는 '섬 속의 섬'인 우도에서 볼 수 있다. 우도 선사유적지인 동굴입구 집자리가 일본군 탄약고터로 이용된 것이다. 우도는 당시 전진거점진지로 구축되기도 했다.

갱도진지 구축과 비밀비행장 건설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해안은 자살특공기지 2곳이 만들어졌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 해안과 조천읍 서우봉 해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제주 동부지역은 중산간지대는 물론 해안에 이르기까지 갱도진지와 비행장 건설, 특공기지 등 일본군이 남겨놓은 다양한 군사시설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껏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차츰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 뿐만 아니라 조천읍 서우봉 해안 특공기지의 경우는 구조적으로나 보존상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108여단 사령부 주둔지인 거문오름 갯도내부 바닥에 남아있는 '껍쇠'.

[탐사포커스]게릴라전 대비 다양한 진지 구축

일본군 제108여단 주둔지인 제주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진지는 주저항진지대 2곳 9개소를 비롯 전진거점진지 2개소, 위장진지 11개소, 사령부 주둔지 1개소 등이다. 주저항진지와 전진거점진지가 적은 대신 위장진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일대가 고정된 작전개념이 아닌 게릴라전을 위한 무대, 즉 유격진지대로 상정된 것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교래리에는 비밀비행장이, 해안가에는 조천읍 서우봉과 성산일출봉에 자살특공기지가 만들어졌다. 탐사를 통해 확인한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입구 함몰 갯도 수 포함한 전체 숫자)

▷거문오름 10(15) ▷부대오름 10(20) ▷부소오름 1(10) ▷체오름 10(15) ▷안돌오름 8(10) ▷밭돌오름 5(10) ▷거친오름 (2) ▷대록산 5(10) ▷지미봉 1(3) ▷우도 1 ▷성산일출봉 18 ▷서우봉 20 ▷와흘굴 1.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